봉암사명상마을 청사진, '전통의 현대화' 방점

명상마을추진위, 국제건축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美한라한 교수-현대종합설계팀 선정, 10월 착공

조계종립 특별선원 봉암사와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가 한국 간화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건립 추진 중인 '문경세계명상마을' 청사진이 공개됐다.

봉암사문경세계명상마을추진위원회(공동대표 적명 · 혜국)는 6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국제건축설계지명공모 참가 작가 설계안을 심사, 당선작으로 토마스 한라한 교수(미국 프렛대학)와 현대종합설계팀을 선정했다.

'전통의 현대화'에 방점을 찍은 한라한 교수는 선방을 상 · 중 · 하로 구분하고, 회랑을 통한 이동이 가능토록 기획한 데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각 선방에 정원을 배치하는 한편, 무문관과 꾸띠(토굴)를 본관과 분리해 수행집중도를 높였다. 전통기와 대신 아연징크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이고, 태양광 패널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심사에는 건축 · 조경 · 환경디자인 전문가 10인과 추진위원회 스님들, 고윤환 문경시장, 김지현 문경시의회의장, 권기섭 경북도청 도시기획과장 등이 참여했다.


토마스 한라한 교수

상 · 중 · 하 선방 나누고
개인수행장소 별도 마련
수행 편의 · 친환경 평가
"단계별 공사에도 용이해"

봉암사 결사 70년 맞아
오는 10월 1단계 착공
2018년 준공 개원 목표
일반인 대상 명상 계획


토마스 한라한 교수가 설계한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조감도.

상임추진위원장 의정 스님은 심사평을 통해 "수행 편리성과 친환경성, 에너지 생산 및 효율 등 심사서 한라한 교수 작품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며 "단계별로 공사하기 용이한 데다 선 정신이 건물과 정원, 전체 환경에 융합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한라한 교수의 설계안에 따르면 명상마을에는 3개의 선방과 웰컴센터(사무동), 숙소동, 다도실, 무문관 및 꾸띠, 정원 등이 들어선다. 초심자들을 위한 하선방과 지도자과정 상선방은 50여 명을, 중간과정인 중선방은 1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게 했다. 숙소동은 남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나눴으며, 무문관과 꾸띠를 각 15개씩 배치해 개인 수행을 배려했다. 어느 곳에서든 자연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췄다.

추진위는 7월 중으로 현상공모설계팀과 계약을 맺고, 1단계 60억 원 규모의 설계에 착수한다. 이후 9월까지 자부담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시공 건설회사를 선정하고, 10월 말 봉암사 결사 70주년 기념대법회에 맞춰 기공할 예정이다. 2018년 12월 1단계 준공 개원을 목표로 하며, 곧바로 2단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추진위 공동대표 혜국 스님은 "여러 국가의 선센터를 답사해봤지만 봉암사 자연환경이 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한국 선불교의 정신적 의지처인 봉암사와 명상마을이 잘 어우러져 국위선양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진위는 현재 확보한 3만6000여 평 대지 위에 명상마을을 조성하고, 일반시민과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선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명상 한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인류 정신문화에 기여해 선불교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다.

한편 토마스 한라한 교수는 일로노이 주립대학 건축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 설계대학원 건축학과 석사를 받았다. 프렛대학 학장 및 건축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한라한 마이어스 건축설계사무소 공동설립자다. 대표작으로 뉴욕 그리니치빌리지 제10 교회, 프렛대학 기숙사, 배터리 공원도시 커뮤니티센터 등이 있다. 특히 원불교의 뉴욕 원다르마센터 설계를 맡아 기교를 배제한 디자인을 선보여 각광을 받기도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宗·學·官, 화과원 사적 지정 힘모은다

대각회 · 동국대 · 함양군 협약

불교계와 종립대학, 지자체가 백용성 스님의 업적 선양을 위해 힘을 모은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6월 26일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재)조계종 대각회(이사장 혜총), 경남 함양군(군수 임창호)과 용성 스님 화과원 유허지의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용성 스님 화과원 유허지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한 학술연구 및 학술대회 등 행정사항 추진협의 △함양군 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함양군 내 고등학교 동국대 입시정보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성공적인 협약 이행 및 화과원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해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용성 스님은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명으로, 독립운동가이자 선지식이었다. 함양 화과원은 스님이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929년에 황무지와 임야를 개간해 만든 과수원이다. 용성 스님은 이곳을 거점으로 일제의 억압을 피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고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오른쪽 첫째)과 김승하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복직 희망의 끈 놓지 않길"

자승 스님, 복직 투쟁 KTX여승무원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28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 복직 투쟁 중인 KTX여승무원들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서 자승 스님은 "여기 오는 내내 답답한 마음이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희망의 끝이 있으니 놓지 마시라. 여러분의 그 끈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동계 각종 문제를 노동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계를 대리한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을) 만나면 말씀 부탁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2006년 정리 해고된 여승무원 280명은 10년이 넘도록 복직 투쟁을 해왔다. 이 과정서 1명이 목숨을 끊고, 현재 33명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코레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1인당 1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호섭 기자**

"불교계, 항일 불교사적지 관심 全無"

한동민 박물관장, 불교사회연구소 항일운동 세미나서

"독립기념관에서 간행한 〈국내 항일운동 사적지조사-서울〉편에 따르면 불교계와 관련한 사적지는 6곳이다. 전체 사적지 199개소 가운데 3% 수준인 이 수치는 미미하다 못해 민망한 상황이다. 이는 불교계 내부 연구성과가 미약하고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3.1운동 100주년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교계의 미진한 연구사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장은 6월 30일 서울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문수실서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주최한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세미나서 이 같이 지적한 뒤 항일관련 불교사적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관장에 따르면 전국 14개 권역별로 조사된 〈국내 항일운동 사적지조사〉에서 불교계 사적지는 42개소다. 하지만 백담사는 활동인물이 중복되고, 한용운과 백용성 스님 관련 사적지가 6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적지조사〉서 의병관련 사적지는 11개소였으나 한 관장의 개인조사에서 2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 관장은 "전국적 사적지 조사가 수백개소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불교계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며 불교계 차원의 연구 노력을 주문했다.

사적지조사 · 관련연구 미흡
'순례길 개발' 등 추진해야

한 관장은 불교계 사적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병지도 제작 △의병답사 순례코스 개발 △사찰 중심 '의병의 길' 조성 △의병항쟁지 표석 세우기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의 의병활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 대표 사찰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도 당부했다.

한 관장은 이외에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한 인물연구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독립유공자 포상인원은 2016년 기준 1만4576명이다. 하지만 임혜봉의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운동〉(2011) 부록에 불교계 포상자는 36명을 싣고 있어 아무리 많아도 50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불교계 연구는 한용운 · 백용성 · 백초월 등 대표적 인물 위주로 진행돼 왔다. 향후 포상자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실시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조언했다.

한 관장은 이어 "각 종교별로 근현대 연구기관을 두고 학술지를 내지만 객관성을 잃은 연구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근현대종교사연구회(가칭)'를 결성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동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교계 3.1운동의 회고와 전망(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 △대일항쟁기 불교계 독립운동가들의 활약과 향배(이동언 선인역사문화연구소장) 등이 발표됐다.

윤호섭 기자

출가 · 캠퍼스 생활 4년간 '동시에'

중앙승가대, Uni-출가자 모집

출가와 대학캠퍼스 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계종립 중앙승가대는 "오는 8월 중순까지 '4년 단기출가자(이하 Uni-출가)'를 모집한다"고 6월 29일 밝혔다.

Uni-출가는 지난해부터 중앙승가대가 새롭게 추진하는 새로운 출가 모델이다. 중앙승가대서 정규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스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거나 사회전문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모집대상은 고교졸업학력 이상의 만 50세 미만인자(일반인), 고등학교 재학생(청소년)으로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출가 특별법'에 의거 행자교육이 면제된다.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4년 전액 지원되며, 대만 불광대학 · 미국 서래대학 · 일본 교토 불교대학 등 교환학생으로도 갈 수 있다. 또 군법사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7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